

전기차/배터리산업

전기차산업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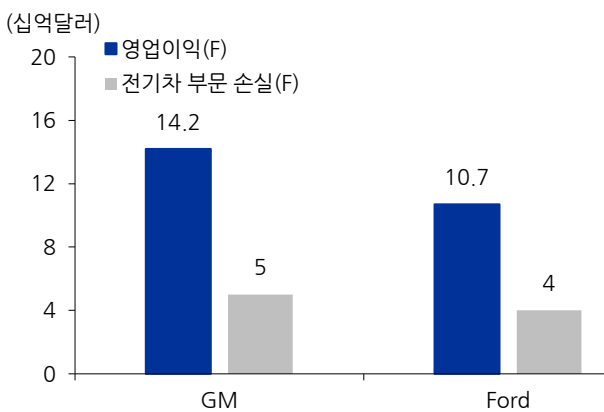
테슬라의 2025년 20~30% 판매 가이드스 증가 감안하면 미국 업황 턴어라운드 가시성 높아져. 트럼프 우려에 따른 K 배터리 등 그린산업 관련주 약세는 우려에 불과. 긍정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길 권고

트럼프 우려는 신기루에 불과 2025년 미국 업황 턴어라운드 가시화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mailto: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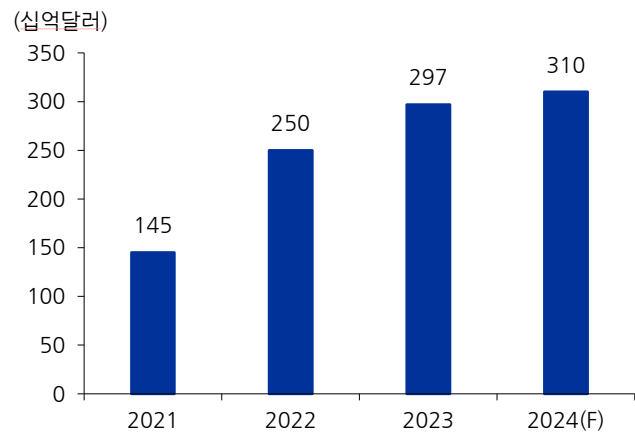
- 2025년 테슬라 판매 성장 가이드스 20~30% 제시로 마지막 퍼즐 맞춰져
- 미국 테슬라 판매 올해 7% 역성장에서 2025년 12% 성장 예상 유지
- 트럼프 당선되고 상하원 장악해도 IRA 폐지 반대하는 하원 공화 의원들 많아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 유지될 것
- GM, 포드의 전기차 부문 손실이 전체 영업이익의 30% 상회하는 상태. 손실 축소 위해 판매 확대 방법 밖에 없어
-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투자금액 3천억달러 넘어서. 속도 늦추면 미국 자동차 산업 자체에 위기 초래할 것
- 트럼프가 중국업체들의 미국 간접 진입까지도 막고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푼다면, K배터리에 수혜
- 미 대선으로 인한 그린산업 관련 주가 변동은 신기루. 당선 후 주가는 시장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여

GM, Ford의 2024년 전기차 부문 예상 손실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의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투자, 되돌리기에 늦어



자료: Atlas EV Manufacturing Investment, 유진투자증권

테슬라 2025년 재성장세로 미국 전기차 업황 개선 가시화

테슬라는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2025년 판매 가이드를 20~30% 증가로 주었고, 생산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모델 Y 리프레스시 유니퍼 출시, 사이버트럭 판매 증가 외에 저기 모델을 상반기에 판매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전기차 업황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1위 업체인 테슬라 판매가 역성장했기 때문이다. 재성장세로 전환한다면 미국 전기차 업황의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진다. 당사는 테슬라의 미국 판매가 올해 -7%에서 2025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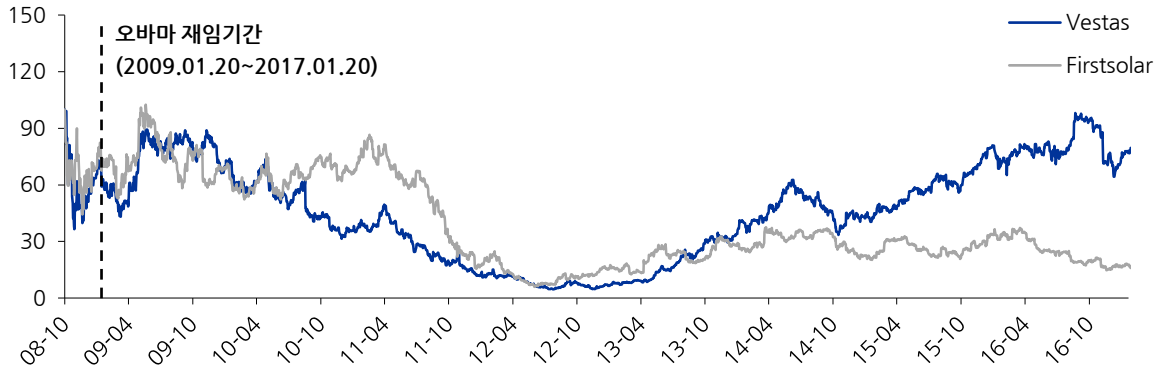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되어도 전기차 업황에 큰 영향 주기 어려워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을 장악해도 전기차 업황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IRA를 무산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과 의장은 IRA 폐지에 대해 이미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현재 민주당과 박빙인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의석 수 차이가 몇 석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RA를 전면 부정하는 반대입법은 불가능하다. 중국업체들이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 조항 같은 것이 조기에 폐지되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할 것이다. 연비규제 대폭 축소는 트럼프의 1기와 같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때와는 업체들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돌이킬 수 없는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할 상황이다. IRA 보조금만 살아있다면 미국 시장의 업황 개선은 진행될 것이다.

미 대선과 주가 예상은 신기루에 불과, K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긍정 관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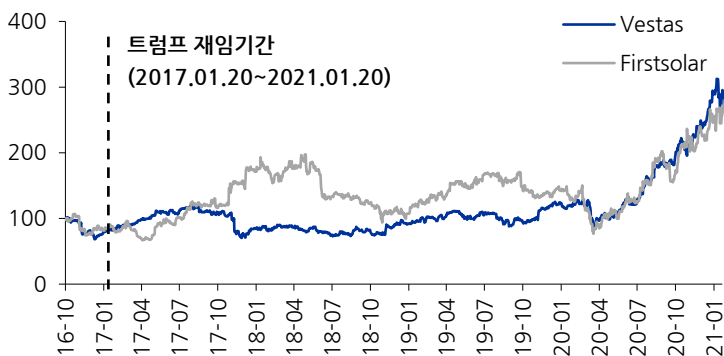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배터리 등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대선과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 연관성이 부각된 것은 오바마정부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상과 완전 반대로 주가가 움직였다. 오바마 당선 전에는 그린산업 관련주들이 상승했지만, 첫 임기 4년 동안에는 주가가 부진했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였다. 힐러리에 대한 기대로 오른 주가가 초기에 잠깐 하락했을 뿐, 트럼프 재임기간 중 그린산업 전체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다. 바이든의 4년도 예외가 없었다. IRA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금리상승 여파로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는 대체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미 대선과 그린산업 관련주 향방에 대한 예상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업황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이는 K배터리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

도표 1. 오바마 1 기때 당선 전후 제외하고 그린산업 대표주 주가 하락세 시현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08.10.01=100

도표 2. 트럼프 1 기때에도 그린산업 대표주들 주가 영향 미미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16.10.01=100

도표 3. 트럼프 발작은 일시적, 당선 후 테슬라 주가 정상화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4.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59	2,321	3,013	3,880	4,844	5,853	7,036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621	2,029	2,652	3,440	4,305	5,194	6,233
YoY(%)	51.2	56.3	12.9	25.2	30.7	29.7	25.2	20.7	20.0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9.8	11.9	15.2	19.3	23.7	28.1	33.0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15	11,027	13,121	15,304	17,587	19,909	21,873	23,599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538	12,505	14,522	16,588	18,631	20,219	21,433
YoY(%)	83.7	36.6	30.2	18.7	16.1	14.2	12.3	8.5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4.0	39.2	44.2	49.0	53.4	56.3	57.9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733	880	1,053	1,252	1,485	1,777	2,153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061	3,560	4,040	4,556	5,165	5,986	6,977
YoY(%)	15.1	18.1	(0.5)	16.3	13.5	12.8	13.4	15.9	16.6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2.5	25.7	28.6	31.6	35.1	39.9	45.6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570	19,800	23,354	27,250	31,390	35,449	39,645
YoY(%)	55.0	35.7	21.0	19.5	17.9	16.7	15.2	12.9	11.8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4	21.4	24.5	28.0	31.6	35.0	38.4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9.30 기준)